

‘치즈인더트랩’ CGV 단독 개봉 논란

“대기업 상영시장 독과점 심화 우려”

박해진·오연서 주연의 영화 ‘치즈인더트랩’이 14일 CGV에서 단독 개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영화단체들은 ‘치즈인더트랩’의 CGV의 단독 개봉이 “대기업의 상영시장 독과점을 심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배급사 측은 저비용·고효율을 고려한 배급전략의 하나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단독 개봉은 멀티플렉스 한 곳에서만 독점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수의 스크린을 확보하기는 힘들지만, 수입·배급사 입장에서 안정적인 상영관을 확보하고 홍보·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극장은 독점적 콘텐츠를 확보해 다른 멀티플렉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주로 저예산영화나 예술영화가 이 단독 개봉을 통해 관객과 만났지만, ‘치즈인더트랩’처럼 톱스타가 출연하는 한국의 상업영화가 단독개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상진 옛나인필름 대표는 “시장점유율 50%를 장악하고 있는 CGV가 한국의 상업영화를 단독 개봉하게 되면, 다른 중



소 배급사나 비 멀티플렉스 극장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멀티플렉스 극장도 앞다퉀 단독 개봉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극장의 독과점은 심화되고, 극장이 선택한 영화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치즈인더트랩’의 배급사가 리틀빅픽

처스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리틀빅픽처스는 대형 배급사의 불공정 관행을 깨기 위해 2013년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회원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배급사다. 정상진 대표는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배급사가 대기업에 줄을 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권지원 리틀빅픽처스 대표는 “극장 비수기에 효율적인 배급 방식을 택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권 대표는 “중소영화를 멀티플렉스 3곳에 와이드 개봉하면 극장 예고편, 현수막 등 홍보마케팅(P&A) 비용이 단독 개봉할 때보다 2~2.5배가량 많이 든다”면서 “와이드 개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차상영, 조기 중영 등으로 손실을 명확히 높인다”고 설명했다. ‘치즈인더트랩’의 제작비는 40억 원으로, 와이드 개봉 시 P&A 비용은 10~20억 원 선이지만, 단독 개봉으로 3~4억 원 정도로 줄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할리우드 영화들도 단독 개봉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영화 ‘킬러의 보디가드’는 지난해 8월 30일 CGV에서 단독 개봉해 일주일간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최종 172만 명을 동원했다. ‘월요일이 사라졌다’ 역시 지난달 22일 CGV에서만 개봉해 총 87만7,000 명을 불러모았다. 이 때문에 CGV뿐만 아니라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도 단독 개봉작을 늘리는 추세다.

의 마스터링 엔지니어 테드 젠슨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최근 전곡의 녹음을 마친 나얼은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뮤직비디오 연출은 브라운아이드소울과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송원영 감독이 맡았다.

아울러 나얼은 브라운아이드소울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브라운아이드소울은 오는 5월 전국투어 콘서트 ‘솔 워크’(Soul Walk)를 시작한다. 서울, 대전, 대구, 수원, 광주, 부산에서 정영·나얼·영준·성훈 등 네 멤버가 모두 모여 라이브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SM, 키이스트 경영권 확보

최대주주 배용준 보유 지분 전망 매수

텔런트 배용준씨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 연예기획사 키이스트 지분 처분으로 4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키이스트는 최대주주인 배용준씨가 보유 지분 1,945만 5,071주(25.12%) 전망을 SM에 넘긴다고 14일 공시했다.

배씨는 키이스트를 주당 2,570원씩 모두 500억원에 매각한다.

연예기획사 SM도 키이스트 주식 1,945만5,071주(25.12%)를 500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경영권을 확보해 기존 사업부문과 함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플랫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M은 배씨를 상대로 주당 3만8,075원씩 350억원 규모의 신주 91만9,238주를 증자를 통해 배정하고 나머지 150억원은 5월 14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즉 배씨는 키이스트 경영권을 엠스엔 측에 넘기는 대신 에스엠 주식을 확보해 주요 주주로 올라서는 것이다.

배씨의 지분 가치는 전날 증가 기준 561억원으로, 이번 매각에서 배씨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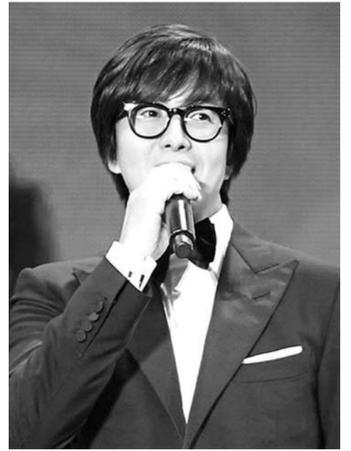
그러나 배씨는 키이스트 투자 12년 만에 4배 넘는 차익을 냈다.

배씨는 2006년 3월 소프트뱅크코리아와 손잡고 자본잠식으로 매매정지된 코스닥 오투원테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130억원의 투자금액 중 90억원을 출자했다.

최대주주로 등극한 배씨는 회사를 키이스트로 변경해 연예기획사로 성장시켰다.

키이스트가 엔터테인먼트 테마주로 주가가 고공 행진을 하면서 배씨의 보유 지분 가치는 1천억원대를 넘기도 했으나 주가가 고전하면서 평가이익이 500억원대로 줄어 들었다.

키이스트는 작년 11월 제출한 분기보고서에서 현재 배



용준과 손현주, 김현중, 주지훈, 김수현, 엄정화, 정려원, 한예슬, 홍수현, 소이현, 이현우, 박서준, 박수진, 손담비, 구하라, 안소희, 한지혜, 우도환 등 국내 유명 연예인과 신인 아티스트들과 전속계약을 맺고 이들을 기반한 여러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이스트는 앞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SM이 지칭하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이번 주식 양수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전 10시 현재 키이스트와 SM 주가는 각각 8.7%, 4.4% 하락했다.

한편 재벌닷컴이 집계한 연예인 상장 주식 부자는 전날 증가 기준으로 이수만 SM 회장이 보유 상장 주식 자산이 1,843억원으로 1위를 지키고 있다.

다음으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이사가 보유 주식 자산 규모가 1,079억원으로 불어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1,033억원)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배씨는 4위에 있다. /연합뉴스

나얼, 정규 2집 ‘사운드 닥트린’

펑크·디스코·어반 등 시도...28일 발매

가수 나얼이 오는 28일 정규 2집 ‘사운드 닥트린’(SOUND DOCTRINE)을 발표한다.

14일 소속사 톱플레이뮤직에 따르면 ‘사운드 닥트린’은 나얼이 2012년 발표한 정규 1집 ‘프린시플 오브 마이 솔’(Principle of my soul) 이후 6년 만에 내놓는 정규앨범이다.

그는 이번 앨범에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흑인 음악 장르인 펑크, 디스코, 필리 솔, 어반, 모던 솔 등을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다. 지난해 11월 음원차트 정상을 휩쓴 첫 싱글 ‘기억의 빈자리’와 12월 발표한 ‘글로리아’(Gloria), ‘베이비 펑크’(Baby Funk)를 비롯해 다채로운 곡을 담았다.

특히 제작 과정에 마돈나, 빌리 조엘, 노라 존스와 작업한 미국 스티링 사운드

제이홉, ‘호프 월드’ 빌보드 38위

한국 솔로 가수 최고 기록

그들 방탄소년단의 제이홉(본명 정호석·24)이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지난주 자신이 세운 한국 솔로 가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3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지난 2일 발매된 제이홉의 첫 믹스테이프 ‘호프 월드’(Hope World)는 ‘빌보드 200’ 38위에 올라 지난주 63위보다 25계단 순위가 상승했다. 한국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2주 연속

진입이다. 또 이 앨범은 ‘월드 앨범’ 1위, ‘인디펜던트 앨범’ 3위, ‘디지털 앨범’ 4위, ‘톱 앨범 판매’ 17위, ‘캐나다인 앨범’ 35위를 기록했으며 ‘톱 랩 앨범’ 차트에는 19위로 첫 진입했다.

제이홉도 솔로 아티스트로서 ‘이머징 아티스트’ 3위, ‘아티스트 100’ 91위를 차지하며 2주 연속 ‘차트인’에 성공했다.



지난해 9월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어셀프-승-허’(LOVE YOUR-SELF 承 Her)는 ‘빌보드 200’ 115위를 기록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TV					
	KBS1	KBS2	MBC	KBC-SBS	E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 와이드	00 한국기행(재) 20 세계테마기행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50 역류	30 KBC 모닝 730	30 띠띠뽀 띠띠뽀(재) 45 뽀뽀뽀 뽀로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어영차 바다야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00 당동맹 유치원 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45 뽀뽀뽀 뽀로로
9	30 KBS 뉴스 40 평창 패럴림픽 라이브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25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10 좋은 아침	00 똑막맨 30 불랑
10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11		00 추리의 여왕 시즌2(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20 세계테마기행(재)
12	00 KBS 뉴스12 30 사랑의 가족	05 인형의 집(재)		00 평창 2018 패럴림픽	00 EBS 정오 뉴스 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	20 공룡 메가드 50 안녕! 괴발개발 시즌2				00 지식채널e 40 다큐 시선(재)
2	20 팔도밤산(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30 2018 평창 패럴림픽	05 데릴남편 오작두(재)	00 뉴스브리핑	30 레인보우 루비
3	05 특집다큐 (MB 의혹, 범 앞에 서다)		10 똑? 똑! 키즈쿨 4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00 로봇 발명왕 러스티(재) 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4	00 4시 뉴스집중		00 MBC 다크프라이 55 뉴스콘서트	00 여행배를 로그인 코리아 55 수확이 야호(재)	10 당동맹 유치원(재) 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45 뽀뽀뽀 뽀로로
5	00 KBS 뉴스 5 30 전곡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프린세스 프링 2 15 터닝메카 R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10 당동맹 유치원(재) 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45 뽀뽀뽀 뽀로로
6	00 6시 내고향 55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정금의 법칙(재)	00 똑! 똑! 보니 하니 25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45 미스터리 식당 Q
7	00 KBS 뉴스 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인형의 집	15 전생에 왓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TV블로그 토크라	00 사이언스타 Q 30 EBS 뉴스 50 엄마를 찾자(재)
8	25 마미유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속보보는TV 인사이드	55 판결의 온도	00 SBS 8 뉴스 35 KBC 8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40 세계테마기행
9	00 KBS 뉴스 9 50 KBS 스페셜				30 한국기행 50 다큐 시선
10	45 슈퍼 50 KBS 뉴스라인	00 추리의 여왕 시즌2	00 다시 만나는 하얀겨울	00 리턴	45 다문화 고부 열전
11	30 세계건강기행 50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0 MBC 스페셜	10 김여준의 블랙하우스	55 EBS 스페이스 공감
12	40 인간극장 스페셜(재)		10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하이라이트	30 나이트 라인	

오늘의 운세 3월 15일(1월 28일)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p>子</p> <p>48년생 고향업 동맥경화증 등 건강에 주의하라. 60년생 눈 뜨고 도둑맞지 않도록 주의하라. 72년생 작은 질병도 소홀히 하지 말라. 84년생 연인 간에 다툼이 있다.</p>	<p>午</p> <p>42년생 조상신이 나를 지키고 있다. 54년생 돈 잃고 사람 잃는 운세이니 자중하라. 66년생 세상일은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78년생 오히려 무조심 참아라.</p>
<p>丑</p> <p>49년생 모처럼 집안에 경사가 있다. 61년생 수입이 갑자기 증가한다. 73년생 주위가 어수선하고 산만하다. 85년생 승진 운이 있으니 동료들과 축배를 드는 날이다.</p>	<p>未</p> <p>43년생 나이를 잊고 마음껏 활동해도 좋다. 55년생 나에게 멋진 친구가 있다. 67년생 내 주장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라. 79년생 과정은 힘들어도 결과는 좋다.</p>
<p>寅</p> <p>50년생 고생한 배우자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자. 62년생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74년생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난다. 86년생 부모님과 맞서지 말라.</p>	<p>申</p> <p>44년생 왕년의 경험이 빛을 발휘한다. 56년생 좋은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 68년생 건강에 신경을 쓰고 낙상을 조심하라. 80년생 내일을 만나는 날이다.</p>
<p>卯</p> <p>51년생 정당한 내 몫을 찾는 날이다. 63년생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정리하라. 75년생 나를 믿어주는 은인을 만난다. 87년생 역시 일처리에 마무리가 중요하다</p>	<p>酉</p> <p>45년생 건강을 위해 산책을 하라. 57년생 배우자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낸다. 69년생 부부 금슬이 좋아지는 날이다. 81년생 행운이 찾아오니 소식을 기다려라.</p>
<p>辰</p> <p>52년생 기대하지도 않은 일척을 낚는다. 64년생 친구와의 만남이 즐겁다. 76년생 때로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 88년생 친구의 꼬임에 빠져 일탈 행위를 할 수 있다.</p>	<p>戌</p> <p>46년생 하늘이 내편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 58년생 매사에 몸을 사리고 조심하라. 70년생 지친 몸을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 82년생 머리가 맑아지는 좋은 날이다.</p>
<p>巳</p> <p>41년생 자신감이 충만하다. 53년생 어설픈 행동이 위험을 불러들인다. 65년생 자신감을 갖고 임하면 승산이 있다. 77년생 내일을 위해 일찍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라.</p>	<p>亥</p> <p>47년생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 59년생 쌓은 공덕으로 인해 존경을 받는다. 71년생 누이 좋고 매부 좋다. 83년생 중요한 일은 일단 중지하고 재검토하라.</p>